



## 인생의 여덟 가지 맛 - 인생팔미(人生八味) -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 성균관대 철학박사
- 前 포스코 석좌교수
- 前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도 대체 살맛이 안 난다!”일이 안 풀리거나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느꼈을 때 입에서 가끔 나오는 말이다. 인생에도 맛(味)이 있을까? 나는 인생에 맛을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인생의 맛을 알고 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人莫不飲食)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鮮能知味也)’(중용(中庸) 4장(章)에 나오는 말이다. ‘지미(知味)’는 ‘맛을 안다’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매일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정작 그 맛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음식은 먹고 있으나 맛을 못 느끼고 오로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2040년에 이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진다는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도 아무런 인

생의 맛(味)을 모르고 그저 나이만 많이 먹는다면 장수(長壽)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산다거나, 하루하루 재미없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오래 산다는 것은 인생의 큰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왜 인생의 맛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일까? <중용>의 대답은 간단하다. ‘똑똑하고(知) 잘난 자(賢)들은 늘 중용의 선을 벗어나고, 어리석고(愚) 못한 자(不肖)들은 중용의 선에 못미치기 때문이다(知者過之 愚者不及 賢者過之 不肖者不及).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은 사회적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나이를 먹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이 그리 맛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다. 반면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역시 인생의 제대로 된 맛을 알며 살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맛을 알며 사는 지미(知味)의 인생은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의미 있는 것들, 이런 인생의 맛을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라고 한다. 송(宋)나라 소강절(邵康節)이라는 성리학자는 어느 날 늦은 저녁 밤하늘의 달을 보고,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인생의 가장 맛있는 순간이라고 읊으면서 그 일상의 맛을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이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의미(意味)’는 ‘맛(味)’이다.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맛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맛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이 느끼는 인생의 맛이다. 특별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나만이 느끼는 맛이 지고지미(至高之味)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인생의 맛을 제대로 즐기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인생을 맛있게 사는 방법, 인생팔미(人生八味)가 나온 연유이다.

첫째, 인생의 맛은 음식지미(飲食之味)다. 인간은 매일 먹는다. 그런데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미 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몸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느끼며 먹을 수는 없을까? 비록 비싸고 귀한 음식이 아니라고 해도,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밥상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맛있

는 인생의 출발 지점이다.

둘째는 일에서 맛보는 ‘직업지미(職業之味)’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사는 맛이다. 아무런 감흥과 자부심 없이 돈 때문에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맛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은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맛을 느낄까?” 이런 질문을 출근길에 할 수 있다면 참 맛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셋째는 바람처럼 사는 ‘풍류지미(風流之味)’다. 풍류는 바람(風)의 흐름(流)이다. 내 몸이 진실로 바라는 곳을 향하여 바람처럼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것이 여행이든, 취미든 내 바람을 충족시켜주기에 바람직한 맛을 알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남들이 아니까 나도 하는 여행이나 취미가 아니다. 남들에게 과시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함도 아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나의 자유로운 영혼을 여행이나 취미를 통해 느끼는 맛이다.

넷째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얻는 맛, ‘관계지미(關係之味)’다. 관계에 불이 켜지면 인생이 맛은 급작스럽게 떨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가족과 형제, 동료들과의 상처는 인생의 맛에 가장 큰 저감 요인이다. 진실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 기쁨을 공유하는 맛, 가족, 형제, 동료와 어쩔 수 없어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맛이다.

다섯째는 타인을 위해 내 능력을 나누는 ‘봉사



지미(奉仕之味)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허전하다.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비록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행복의 맛으로 온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여섯째는 배움의 맛, '학습지미(學習之味)다. 공자는 배우고(學), 그 배움을 내 삶에 반영시키는(習)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기쁨(悅)이라고 말했다. 배움과 실천, 그 안에 인생의 맛이 있는 것이다.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내 삶 전반에 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며, 오늘 묻는 모든 질문이 배움의 시작이다. 하루하루 배움과 깨우침 속에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일신(日新)의 나를 만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최고 맛이다.

일곱째는 균형 잡힌 몸과 정신을 보존하는 '건강지미(健康之味)다. 몸은 정신보다 앞선다. 몸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의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의 맛이다. 육신이 그저 육체 덩어리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갖

춘 내 몸을 느끼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신의 성찰을 통해 느끼는 '성찰지미(省察之味)다. '나(我)라는 존재를 규명해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맛이다. 성공과 실패 뒤에 성찰로 나를 돌아보고, 더욱 성숙해지는 나를 만나는 맛을 다른 맛에 비할 바 아니다. 성찰이 없는 인생은 퇴보의 인생이다. 돌아보고, 살피고, 따지는 것은 우주 속에 귀한 나를 찾는 길이다.

귀한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돈이 많더라도 이 인생팔미(人生八味)를 제대로 알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맛은 일상의 맛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느끼는 맛이 지 미래에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을 통해 얻어지는 맛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는 맛이다. 맛을 느끼는 주체는 철저하게 '나' 이어야 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귀(富貴)와 빈천(貧賤), 환란(患亂)과 우환(憂患)은 인생팔미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환란 속에도 얼마든지 맛이 있고, 우환 속에도 청량한 맛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인생팔미(人生八味), 그것은 비싸고 어렵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바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찾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맛이다. 다시 한번 치열하게 질문하라! "나는 지금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KMIF**